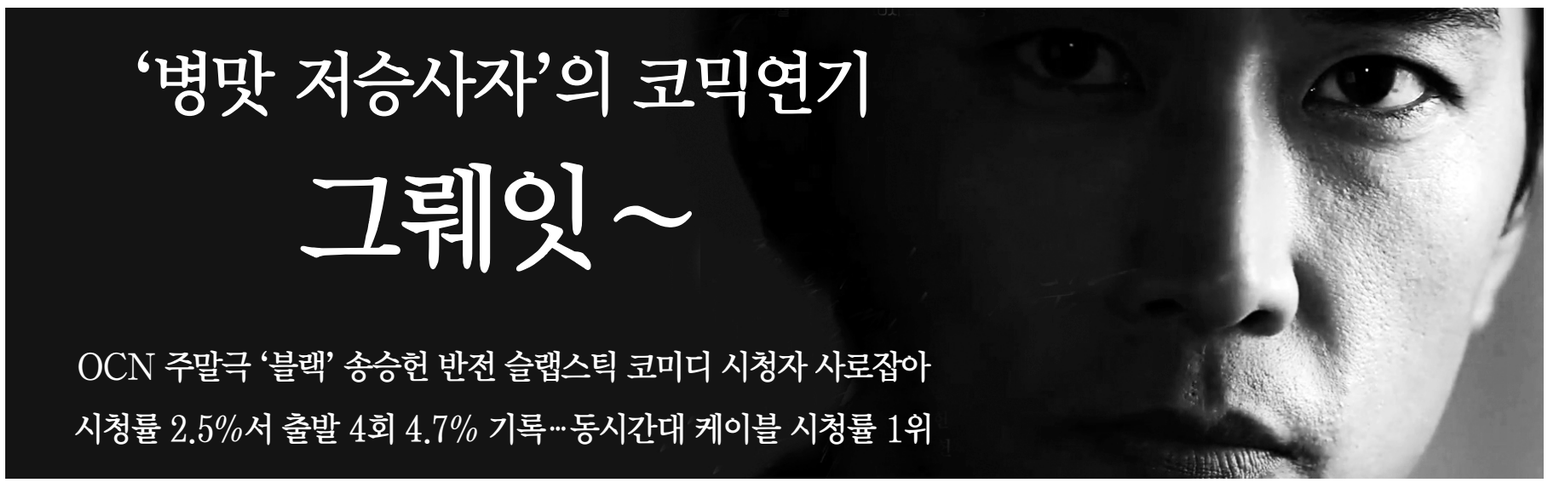

‘병맛 저승사자’의 코믹연기 그뤠잇~

OCN 주말극 ‘블랙’ 송승헌 반전 슬랩스틱 코미디 시청자 사로잡아

시청률 2.5%서 출발 4회 4.7% 기록…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

얼굴에 힘을 잔뜩 준 채 온갖 폼을 잡더니 전화 수화기를 거꾸로 들고 통화를 한다.

하의는 물론이고 팬티도 안 입은 채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활개 치며 돌아다니니 딱 ‘변태 바바리맨’인데 본인만 모른다. 심지어 그 트렌치코트가 수백만원짜리인데 달랑 3천원만 내고 옷가게에서 사라진다.

저 옛날 비슷한 ‘병맛’(형편없고 어이없지만 웃긴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 코드로 시청자에게 큰 웃음을 줬던 키 큰 여자 ‘프란체스카’가 떠오른다. 그런데 종족이 다르다. 프란체스카는 뱀파이어였고, 이번에는 저승사자다. 이름은 ‘블랙’.

OCN 주말극 ‘블랙’이 핏빛 스릴러 속 허를 찌르는 슬랩스틱 코미디로 독특한 재미를 안겨주고 있다. 그 임무를 맡은 이가 송승헌이라는 점이 반전이다. 원조 꽃미남이자 근사한 역할을 주로 맡아오던 그가 정색하고 펼치는 병맛 코미디가 기대하지 않았던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 송승헌, 양손에 떡을 쥐다

송승헌은 ‘블랙’을 통해 양손에 떡을 쥐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타고난 외모를 한껏 부각하는 멋진 차림새로 화면을 누비는 그는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코미디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늘 2% 부족한 연기력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송승헌이 안하무인 표정에 독일 병정 같은 딱딱한 몸짓으로 상대방의 뒷목을 잡게 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이어가자 연기력 논란도 싹 사라졌다. ‘송승헌이 이렇게 웃겼던가’ 등의 반응이 쏟아진다.

인간 세계 물정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인간을 늘 하찮은 미물로 취급하는 거만한 저승사자 블랙에게 인간계 위계질서 따위가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어리숙한 형사(한무강)의 몸속으로 들어가 위장한 블랙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반말을 찍찍 내뱉고, 경찰 조직의 규율이나 질서는 가볍게 무시한 채 제멋대로 구는 모습은 수준 낮은 하위 코미디 같으면서도 송승헌이기에 색다르게 다가온다.

살인 사건 용의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전화탐문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블랙이 귀찮아하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네가 죽였지?”라고 묻는 식으로 펼쳐지는 코미디는 한밤 중 폭소를 유발한다. 근사한 검정 수트 차림, 말끔한 헤어스타일의 송승헌이 자신을 희화하듯 보여주는 ‘철부지 막가파’ 행동이 드라마 ‘블랙’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방송 전까지는 지난 겨울 안방극장을 뒤흔든 ‘도깨비’의 매력적인 저승사자 이동욱을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송승헌은 전혀 다른 코드로 자신만의 ‘병맛 저승사자’를 선보이며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 ‘조 블랙’을 패러디하고 스릴러를 강화하다

OCN과 슈퍼액션에서 동시 방송되는 ‘블랙’은 시청률 2.5%에서 출발해 지난 22일 4회에서 4.7%를 기록했다. 매회 시청률이 오르며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블랙은 영화 ‘조 블랙의 사랑’(1998)의 저승사자 조 블랙을 패러디했다.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조 블랙은 근사하고 로맨틱한 저승사자였다. ‘블랙’의 송승헌은 ‘조 블랙의 사랑’의 브래드 피트처럼 멋진 차림으로 등장하고, 그 이름마저 차용하는 것으로 ‘조 블랙의 사랑’을 대놓고 패러디한다. 그러나 블랙의 성격과 드라마의 내용은 ‘조 블랙의 사랑’과 전혀 다르다.

2014년 SBS TV ‘신의 선물 14일’을 통해 자신만의 판타지 스릴러를 선보였던 최란 작가는 ‘블랙’에서 다시 한 번 장기를 발휘하고 있다. 끔찍한 살인사건과 공포스러운 죽음의 그림자에 저승사자를 배합해 범죄 액션극과 판타지 스릴러의 재미를 동시에 추구한다. 여기에 멀쩡하게 생긴 송승헌을 활용한 반전 코미디까지 가미해 극의 유연성을 높였다.

4회에서 이미 시청률이 5%에 육박한 ‘블랙’은 향후 풀어놓을 이야기가 많아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블랙이 몸을 빌린 형사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강하람(고아라 분)의 사연, 부도 위기에 놓인 생명보험회사의 비밀 등이 베일에 싸여있다.

드라마는 또한 블랙이 저승사자임에도 자신이 몸을 빌린 형사가 죽지 않도록 애를 써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재미를 배가한다.

‘블랙’은 한류스타 송승헌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방영 24시간 후 매주 일~월 밤 9시45분 tvN 아시아를 통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정은·소유진

무연고 영아 돕기 바자회 봉사활동

배우 김정은〈왼쪽〉과 소유진이 무연고 아기를 돕는 바자회에 참여한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오는 27일 정오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는 ‘무연고 영아 살리기 캠페인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김정은과 소유진이 물품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 바자회는 25~28일 진행되며, 28일에는 슈퍼모델 수상자 모임인 아름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바자회 수익금은 친권포기, 기아, 미아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아기들의 치료 비용으로 쓰인다.

지난 2001년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정은은 영아원봉사, 미혼모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최근 입양문화 정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소유진은 2013년부터 연예인 봉사모임 따사모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과 장애아동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합뉴스

‘득녀’ 비·김태희 부부 딸 제대혈 보관 동참

메디포스트는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셀트리 제대혈 은행에 제대혈 평생 보관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제대혈은 관련 법에 따라 세포 수와 세포 생존도 검사, 미생물 배양 검사, 면역 및 바이러스 검사 등을 거쳐 질소탱크에 보관될 예정이다.

제대혈은 임신 중 태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을 칭한다. 제대혈에는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많이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출산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맙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며 김태희의 딸 출산 소식을 알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 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	50 병원선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 50 UHD 한식	00 매드독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55 세상의 모든 다큐	00 2017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 더하기	00 SBS 12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45 생생정보 스페셜	10 TV예술무대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팔도밥상 스페셜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뽀글아 사랑해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50 토이캅	0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밥상 스페셜 40 남도스페셜	05 터닝메카드 R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재) 55 UHD 한식(재)	20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기아 : 두산〉	10 빛날 스페셜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글로벌 다큐멘터리 -살아있는 지구2			
10	30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병원선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5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고백부부(재)	10 MBC 스페셜	10 자기야-백년손님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평양선수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뚝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학이 야호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미역죽과 양배추 물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아시아 최후의 정글 4부 열대 우림 속 숨은 보석〉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일쟁이 할머니와 베짱이 할아버지〉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아버지의 북〉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재)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수학이 야호(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뚝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불의 땅 물의 고향 캄차카 4부 대륙 끝에서 만난 행복〉
21:30 한국기행 〈발길 머무는 섬 울릉도 4부 님과 함께 다시 오지로〉
21:50 과학 다큐 비욘드 〈기후의 역습, 재난생존보고서〉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불량시니어클럽 〈트로트 댄스 그룹 도전기〉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6일(음 9월 7일 丙戌)

子 48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60년생 급하게 뛰어다녀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72년생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으니 기대 해도 된다. 84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3, 84

丑 49년생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뤄지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겠다. 61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73년생 풍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85년생 실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16, 19

寅 50년생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62년생 낱낱이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74년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성국이 조성된다. 86년생 스스로 교두보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3, 70

卯 51년생 무리가 따른다면 행하지 않아야 옳다. 63년생 적시의 정지는 활력이 되어 줄 것이다. 75년생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87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2, 63

辰 52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64년생 본능적이라면 손해 보기 마련이니 이성적 판단에 따르라. 76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88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체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4, 57

巳 53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원리를 명심하자. 65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줘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임하라. 77년생 판국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력이다. 89년생 사리에 맞게 처신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84, 72

午 42년생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자. 54년생 신중하게 선택하라. 66년생 이익 앞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 78년생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90년생 겉으로는 봉합되어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제각각임을 알자. 행운의 숫자 : 54, 73

未 43년생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하는 스트레스가 상당 하겠다. 55년생 결단을 내릴 때이다. 67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79년생 지속적인 노력만이 필요하다. 91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하자. 행운의 숫자 : 07, 15

申 44년생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겹치면서 복잡하게 꼬이는 는 형상이다. 56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68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80년생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58

酉 45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57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69년생 인고의 국면 뒤에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81년생 분주한 시각에 겹치는 일이 많아서 번거롭게 한다. 행운의 숫자 : 45, 92

戌 46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58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득의 폭이 굉장하다. 70년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82년생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8, 16

亥 47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으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59년생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71년생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83년생 지지 기반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8,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